

# 부모요인과 아동의 기질 및 내재적 통제소재가

##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Parental Variables, Temperament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on Self-Regulation of Children

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경님\*\*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Dong-A Univ.

Professor: Lee, Kyung-Nim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arental variable(parental support and supervision), temperament(activity level, attention span/persistence, and emotionality) and the internal locus of control on self-regulation of children. Data were collected from 455 5th and 6th graders and analyzed with Pearson's correlations and pathway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Children's temperament,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parental variable directly affected children's self-regulation. Parental variables mediated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elf-regulation. Internal locus of control mediated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self-regulation: in addition,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children's self-regulation was children's attention span/persistence temperament.

▲주요어(Key Words) :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ion) 기질(temperament), 내재적 통제소재(internal locus of control), 부모지지와 감독(parental support and supervision)

#### I. 서론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된 아동은 학업성취에서 실패하고 학교규칙을 어기며 또래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최근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획득되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의 하나로 자기조절(self-regulation)이 관심을 받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여 자기조절능력은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 신뢰 및 자아존중감, 사회적 능력, 학업성취,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Shoda, et al., 1990) 나아가 청년기와 성인기의 건강한 삶과 성취의 중요한 예측인으로 밝혀지고 있다(Shaffer, 1999).

자기조절은 자기통제(self-control)와 혼용하여 쓰고 있으나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Kopp(1982)는 자기통제와 자기조절을 개념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지만 자기조절을 자기통제의 상위개념으로 통찰, 의식 및 책략생성과 같은 상위인지 능력이 가능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은 자기조절을 상위인지적 능력에 초점을 두어 자기통제보다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즉 상황에 따라 내적인 정서를 억제하며 순응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등의 단순한 행동통제보다는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계획, 점검, 평가하는 등 인지과정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을 강조하고 있다(이정란, 2003; Bodrova & Leong, 1996).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이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행동은 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억제하여 충동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신중하게 계획, 해결,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다(허정경, 2003).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교신저자 : 이경님 (E-mail : knlee@dau.ac.kr)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자기조절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은 인지적 문제해결에서 산만하며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대인관계에서도 충동적, 공격적 성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Rose, 1991) 자기지각능력이 낮고 또래지명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Goodman et al., 1993) 많은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김선희 · 김경연, 1999)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은 성공적인 학업성취와 원만한 대인관계와 바람직한 사회, 정서적 적응에 필수적이므로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는 의미 있다고 본다. 특히 학령기 후반의 아동기는 자기조절능력의 결핍으로 인한 학업성취의 실패, 정서 및 행동의 부적응문제가 급증하는 청소년기 직전의 시기이므로 초등학교 후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변인을 검토하는 연구는 의의 있다고 본다.

자기조절능력은 이미 유아기 초기에 출현하며 아동의 사회화과정에서 개인차가 뚜렷해진다. 18 개월의 영아는 양육자의 간단한 지시와 요구에 순종할 수 있으며 상황에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2세까지는 양육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3세가 되면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며 유아기 동안 점차 증진되어 책략 사용과 함께 아동기와 청소년기 초기까지 발달되고 그 개인차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Berk, 2007).

아동의 발달과 행동은 아동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간의 상호작용 과정의 결과이므로(Leaner & Kauffman, 1985)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아동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개인차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생물학적인 기질요인이 지적 되고 있다(Calkins, 2002). 기질은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성과 자기조절의 개인차를 의미한다(Kail, 2007). 기질을 형성하는 특성들은 어른들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들 특성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으나 최근 Rothbart(Rothbart & Bates, 1998; Rothbart, 2003)의 정서, 활동수준, 주의력의 세 가지 요인이 지지받고 있다(Berk, 2007). 이들 기질 특성들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주의통제는 기질의 자기조절적 차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Rothbart, 2003) 주의통제의 개인 차이는 아동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바꿀 수 있는지 충동을 통제하고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가의 차이를 야기한다. 이러한 맥락에 따르면 아동의 기질의 차이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개인차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가정된다.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기질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기질의 주의집중과 지속성의 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허정경, 2003), 유아의 활동성이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최미숙 · 김미숙, 2005). 유사하게 충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규제능력은 낮으며(엄정애, 2004) 활동성과 유아의 규칙에 대한 자기조절행동과의 관계가 밝혀졌고(박호선, 2002) 남아의 활동성, 규칙성, 반응성이 통제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지현, 2001).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기질 특성은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어떤 기질의 차원이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는 일치되지 못하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질요인과 함께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개인적 특성으로 내재적 통제소재를 들 수 있다. 즉 아동이 자신의 행동이나 그 결과의 원인을 자신의 노력, 의지, 동기 등 자신이 통제 할 수 있는 내재적인 것으로 지각 할 경우 아동은 스스로의 행동을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재적 통제소재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예언변인이 될 것이다. 특히 내재적 통제소재는 학령기 중기 이후 안정되므로(Connell, 1985)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중요한 선행요인이 되리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가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와 정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이경남, 2001), 초등학교 아동의 통제소재가 내재적일수록 자기통제가 높다는 연구(Ferner & Kantz, 1987), 만족지연능력과 내재적 통제소재의 정적 관계를 밝힌 연구(Strickland, 1973)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요인은 자기조절능력의 개인차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다. 부모가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하고 행동하는가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의 직접적인 모델이 된다. 무엇보다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양육자로 부터의 외부통제가 내재화되어 발달되므로 부모의 아동의 행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 및 적절한 통제와 감독의 부모요인은 자기조절능력 발달의 선행요인이 된다. 먼저 부모와의 긍정적인 유대감은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순응하고 행동을 조절하게 하는 정서적 지지원이 되기 때문에(Aronfred, 1976)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애정과 지지는 자기조절능력 획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는 유아의 성숙된 행동에 대한 부모의 따뜻하고 민감한 반응과 합리적인 기대를 경험한 유아들은 더 잘 순응한다는 연구(Kochanska, et al., 1995), 어머니의 온정 · 수용 양육행동이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경남, 2001)에서 확인되고 있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함께 적절한 감독과 통제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의 중요한 선행요인이 된다. 부모가 아동의 생활과 행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아동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때 아동 스스로 올바른 행동과 장기적인 목표를 위하여 사고와 정서 및 행동을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부모의 감독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직접적

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었지만 부모의 감독이 아동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영태·이경님, 2009), 부모의 감독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연구(이경님, 2008)를 감안하면 부모의 감독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유추된다. 이로써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합리적인 부모의 감독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기질과 내재적 통제소재 및 부모지지와 부모감독의 부모요인은 상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아동의 기질적 특성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특정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모지지나 부모감독의 부모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Plomin, et al., 꺾금주 외 역, 2009, 재인용). 이와 관련된 연구로 아동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제한적이고(임희수, 1994), 처벌적 훈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van den Boom & Hoeksma, 1994). 반면 유아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이끌어 내고(임양미, 1994) 유아의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의 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만족도가 높음이 보고되고 있다(오현숙, 2006). 이로써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부모지지나 부모감독의 부모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기질적 특성은 사건과 사물 등 외부의 환경에 대하여 지각하고 경험하고 해석하고 사고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며(Rothbart & Bates, 1998) 인지적, 사회적 기능 및 전반적인 성격의 기초가 되므로(Berk, 2007) 아동이 내재적 통제소재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유추할 수 있다. 즉 내재적 통제소재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성특성이므로(Kliewer, 1991; 민하영, 1998, 재인용)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의하여 의미 있는 영향을 받게 되리라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은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자아존중감이 기질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이경님, 2009)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리고 부모지지와 부모감독의 부모요인과 내재적 통제소재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박영태·이경님, 2009)에 의하면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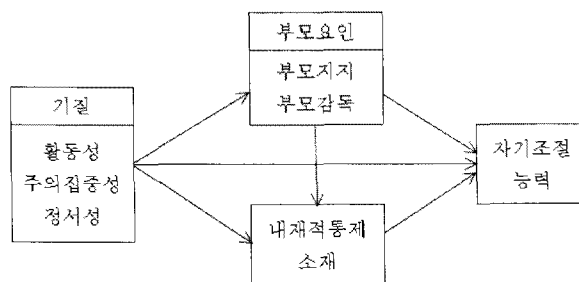
모지지가 높고 부모감독이 많을수록 내재적 통제소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요인이 내재적 통제소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아동의 기질, 부모요인, 내재적 통제소재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또한 동시에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기질적 특성은 부모지지와 부모요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재적 통제소재에도 영향을 미쳐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모요인은 내재적 통제소재에 영향을 미쳐 이는 다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기질, 부모요인, 내재적 통제소재는 상호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자기조절능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된다. 즉 아동의 기질과 부모요인 및 내재적 통제소재는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아동의 기질은 부모요인과 내재적 통제소재를 매개로 하여 부모요인은 내재적 통제소재를 매개로 하여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 영향도 미치리라 가정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하여 아동의 기질과 내재적 통제소재 및 부모요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었으나 이들 관련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 연구는 없어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기질과 내재적 통제소재 및 부모요인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관련변인들의 직·간접적 영향을 경로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아동의 기질과 내재적 통제소재 및 부모요인이 어떻게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증진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가설적 경로모형

<연구문제 1>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아동의 기질 (활동성, 주의집중성, 정서성)과 부모요인 (부모지지, 부모감독) 및 내재적 통제소재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의 공립 초등학교 2개교의 5학년과 6학년에 재학 중인 455명의 아동이며, 이들 중 5학년은 230명 6학년은 225명이며 남아 204명 여아 251명이다. 이들 아동의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41-45세가 258명(56.7%)으로 가장 많았고 46-50세가 100명(22.0%), 51세 이상이 36명(7.9%)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41-45세가 206명(45.3%) 36-40세가 183명(40.2%) 46-50세가 48명(10.6%)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대졸 이상이 309명(67.9%)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81명(17.8%)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대졸 이상이 266명(58.5%) 고졸이 122명(26.8%)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자신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보통 301명(66.2%) 약간 부유 116명(25.5%)으로 지각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기질, 내재적 통제소재와 부모지지 및 부모감독의 부모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및 일반적 배경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 1) 자기조절능력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허정경(2003)이 개발한 자기조절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Miller(2000)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관점(self-regulation perspectives)을 토대로 하여 인지적(11문항), 동기적(8문항), 행동적(8문항) 자기조절의 3개 하위요인 모두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인지적 조절의 경우 '나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메모를 자주 하는 편이다.' 동기적 자기조절의 경우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처음에 잘 하지 못하면 금방 포기 하는 편이다.' 행동적 자기조절의 경우 '나는 어른들의 지도나 지시를 잘 따른다.' 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고 부정적 문항은 역 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의 점수를 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인지적, .73, 동기적, .69, 행동적, .61 및 전체, .83으로 나타났다.

#### 2) 기질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명숙(1994)의 '아동 및 청소년 기질 척도' 중 Rothbart(1989, 2004)의 기질의 3차원을 근거로 하여 활동성, 주의집중성, 정서성의 3개 하위요인 모두 24문항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활동성은 모두 6문항으로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활동수준을 의미하며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주의집중성은 모두 8문항으로 외부자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여간해서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정서성은 모두 6문항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의 균형 정도를 의미하며 '자주 미소 짓는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의 4점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성이 높고, 주의집중성이 높으며 긍정적 정서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활동성, .83, 주의집중성, .85, 정서성, .86으로 나타났다.

#### 2) 내재적 통제소재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를 측정하기 위하여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아동용 내외통제소재 척도(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와 Connell(1985)의 다차원적 통제지각 척도(Multidimensional Measure of Children's Perception of Self-Control)를 참조하여 내재적 통제소재와 외재적 통제소재 각 7문항씩 모두 14문항으로 구성된 이경남(2001)의 내외통제소재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4문항 중 척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문항은 제외하고 모두 13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척도의 문항의 예를 들면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등이다. 본 척도는 4점 평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재적 통제소재를 묻는 문항은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통제소재가 내재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내재적 통제소재, .69, 외재적 통제소재, .68, 전체, .70으로 나타났다.

#### 3) 부모변인

##### (1) 부모지지

아동이 지각한 부모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미현(1996)이 제작한 사회적지지 척도 중에서 가족지지문항을 부모용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의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는 늘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신다.’ 등이다. 본 척도는 10문항으로 5점 평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2) 부모감독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감독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err와 Stattin(2000)의 부모의 감독척도(Parenting Monitoring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한 황숙영(2007)의 부모감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문항은 제외하고 모두 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의 예를 들면 ‘부모님은 내가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 등이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감독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는 2009년 12월 7일부터 17일에 걸쳐 부산시의 사하구와 북구에 소재하는 공립 초등학교 2개교를 임의 표집하여 각 학교의 5학년과 6학년의 각 10학급씩 20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자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고 교장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뒤 아동들에게 질문지가 배부되고 응답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부실기재 된 자료는 제외하고 모두 455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대상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측정도구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기질과 내재적 통제소재 및 부모지지와 부모감독의 부모요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변인들 간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모형 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판단 하기위하여 절대적합지수로 표준카이자승치, GFI, AGFI, RMSEA를 증분적합지수로 TLI, NFI를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먼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기질, 내재적 통제소재와 부모지지 및 부모감독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아동의 주의집중성( $r=.544, p<.001$ ), 정서성( $r=.317, p<.001$ ), 부모지지( $r=.332, p<.001$ )와 부모감독( $r=.400, p<.001$ ) 및 내재적 통제소재( $r=.542, p<.001$ )와 정적 관계가 나타났으며 활동성( $r=-.358, p<.001$ )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의 주의집중성과 정서성이 높을수록 부모지지와 부모감독이 많을수록 아동의 통제소재가 내재적일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아동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1>에 의하면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는 아동의 주의집중성( $r=.350, p<.001$ ), 정서성( $r=.372, p<.001$ ), 부모지지( $r=.316, p<.001$ )와 부모감독( $r=.291, p<.001$ )과 정적관계가 나타났으며 활동성( $r=-.221, p<.001$ )과는 부적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의 주의집중성과 정서성이 높을수록 부모감독과

<표 1>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5	6	7
<b>기질</b>							
1. 활동성	1						
2. 주의집중성	-.194***	1					
3. 정서성	.055	.179***	1				
<b>부모요인</b>							
4. 부모지지	-.134**	.223***	.231***	1			
5. 부모감독	-.116*	.213***	.199***	.563***	1		
6. 내재적 통제소재	-.221***	.350***	.372***	.316***	.291***	1	
7. 자기조절능력	-.358***	.544***	.317***	.332***	.400***	.542***	1
평균	2.20	2.62	3.21	3.73	3.48	3.11	3.45
(표준편차)	.62	.54	.58	.82	.66	.35	.47

\* $p<.05$ , \*\* $p<.01$ , \*\*\* $p<.001$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또한 활동성이 낮을수록 아동의 통제 소재가 내재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에 의하면 부모감독은 아동의 주의집중성( $r=.213$ ,  $p<.001$ ), 정서성( $r=.199$ ,  $p<.001$ ), 부모지지( $r=.563$ ,  $p<.001$ )와 정적관계가 나타났으며 활동성( $r=-.116$ ,  $p<.05$ )과는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의 주의집중성과 정서성 및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활동성이 낮을수록 부모감독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지지는 주의집중성( $r=.223$ ,  $p<.001$ ), 정서성( $r=.231$ ,  $p<.001$ )과 정적관계가 나타났으며 활동성( $r=-.134$ ,  $p<.01$ )과는 부적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의 주의집중성과 정서성이 높을수록 활동성이 낮을수록 부모지지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표 1>에 의하면 주의집중성은 정서성( $r=.179$ ,  $p<.001$ )과 정적관계가, 활동성( $r=-.194$ ,  $p<.001$ )과는 부적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주의집중성이 높을수록 정서성은 높고 활동성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기질과 내재적 통제 소재 및 부모요인의 직·간접적 영향

아동의 기질과 내재적 통제소재 및 부모요인이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적 경로모형이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최적의 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chi^2/df$ 는 1.746( $p>.05$ )로 적합하였다. 그런데  $\chi^2/df$ 값은 모형적합도 뿐만 아니라 표본 크기에 영향

<표 2> 경로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절대적합지수				중분적합지수		
	$\chi^2/df$	p(유의확률)	GFI	AGFI	RMSEA	TLI	NFI
경로모형	1.746	.137	.996	.970	.041	.979	.991
적합기준	$\chi^2/df < 3$	$p > .05$	$> .90$	$> .90$	$< .08$	$> .90$	$>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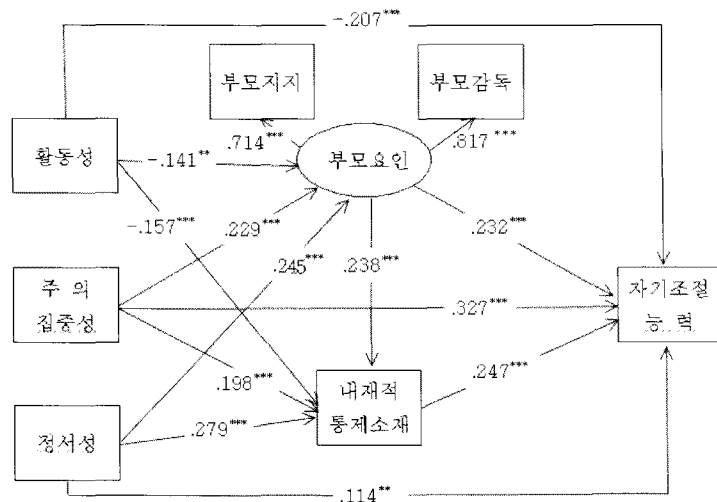
<표 3> 경로모형의 경로계수

변인간 경로	B	$\beta$	SE	C.R	
활동성	→ 부모요인	-.142	-.141	.052	-2.707**
	→ 내재적통제소재	-.089	-.157	.023	-3.811***
	→ 자기조절능력	-.155	-.207	.026	-6.023***
주의집중성	→ 부모요인	.264	.229	.061	4.303***
	→ 내재적통제소재	.129	.198	.028	4.618***
	→ 자기조절능력	.282	.327	.031	9.112***
정서성	→ 부모요인	.263	.245	.056	4.657***
	→ 내재적통제소재	.169	.279	.026	6.560***
	→ 자기조절능력	.091	.114	.029	3.136**
부모요인	→ 부모지지	.941	.714	.101	9.345***
	→ 부모감독	1.000	.817	-	***
	→ 내재적통제소재	.134	.238	.031	4.384***
	→ 자기조절능력	.173	.232	.035	4.892***
내재적 통제소재	→ 자기조절능력	.327	.247	.053	6.223***

\*\*p<.01, \*\*\*p<.001

<표 4>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관련 변인의 인과효과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활동성	-.207	-.080	-.287
주의집중성	.327	.116	.443
정서성	.114	.140	.254
부모요인	.232	.059	.291
내재적통제소재	.247	-	.247



<그림 2>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관련변인간의 최종경로모형

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 GFI, AGFI, RMSEA, TLI, NFI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GFI는 .996, AGFI는 .970, RMSEA는 .041, TLI는 .979, NFI는 .991로 각 적합도가 적합기준에 부합되므로 경로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경로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3>과 같으며 이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활동성은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 영향( $\beta = -.207,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요인( $\beta = -.141, p < .01$ )과 내재적 통제소재( $\beta = -.157, p < .001$ )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주의집중성은 자기조절능력에 가장 큰 직접적 영향( $\beta = .327, p < .001$ )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요인( $\beta = .229, p < .001$ )과 내재적 통제소재( $\beta = .198, p < .001$ )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성은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 영향( $\beta = .114, p < .01$ )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요인( $\beta = .245, p < .001$ )과 내재적 통제소재( $\beta = .279, p < .001$ )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요인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 영향( $\beta = .232, p < .001$ )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재적 통제소재( $\beta = .238, p < .001$ )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는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 영향( $\beta = .247,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경로모형에서 관련변인들이 자기조절능력을 설명해주는 총 변량은 51.0%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직·간접 효과와 총 효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주의집중성이 가

장 큰 인과효과를 보였으며 그다음 부모요인 활동성, 정서성, 내재적 통제소재의 순으로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조절능력에 대하여 기질과 내재적 통제소재 및 부모요인이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로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기질의 특성 중 주의집중성은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요인과 내재적 통제소재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나타나 인과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주의집중성은 자기조절능력을 증가하게 하는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부모지지와 부모감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내재적 통제소재를 높게 하여 자기조절능력을 증가하게 하는 간접 효과도 있어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에 가장 큰 인과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기질 중 주의집중성과 자기조절능력 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난 연구(허정경, 2003)와 일치하였다. 먼저 주의집중성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가장 큰 직접적 영향이 나타난 이유로는 주의집중능력은 기질의 자기조절적 차원으로써 적응적인 반응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적절하지 않은 반응은 억제하는 특성을 포함하므로(Rothbart, 2003) 효율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주의집중성이 부모요인과 내재적

통제소재를 매개로 하여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주의집중성이 높은 아동이 부모 지지와 부모감독을 이끌어 내며 내재적 통제소재도 높아 이는 자기조절능력의 증대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주의집중성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가장 큰 인과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기질 중 특히 주의집중성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질 특성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증진을 위한 방안이나 프로그램에 주의집중증진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성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요인과 내재적 통제소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기조절능력을 증가하게 하는 간접적 효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유아가 만족지연상황의 자기조절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Kochanska & Knack, 2003)와 거의 일치하였으며 아동의 정서성이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난 연구(이경님, 2009)와 유사하였다. 이와 함께 정서성은 부모요인과 내재적 통제소재를 매개로 하여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긍정적 정서는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이끌어내어 부모 지지와 부모감독을 높게 하며 이는 다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높게 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로써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현하는 아동이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활동성은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지지와 부모감독을 감소하게 하고 내재적 통제소재를 낮게 하여 자기조절능력을 감소시키는 간접적 영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활동성, 충동성의 기질적 요인과 자기규제 혹은 자기조절행동이 관계가 있다는 연구(박호선, 2002; 엄정애, 2004)와 일치하였다. 이로써 활동성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저해하는 기질적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활동성은 자기조절능력과의 직접적인 부적 관계가 있으며 높은 활동성은 부모의 지지나 부모감독을 저해하며 내재적 통제소재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자기조절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타나 것이라 유추된다.

이상과 같이 기질적 특성의 모든 차원이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자기조절능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Shiner & Caspi, 2003, 광급주의 역, 2009, 재인용) 외부 환경에 대하여 지각하고 경험하고 해석하며 지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Rothbart & Bates, 1998)

기질적 특성이 부모요인이나 내재적 통제소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경로를 설정하였는바 이러한 경로가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아동의 기질적 특성은 부모요인이나 내재적 통제소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경로도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활동성은 부정적 영향을, 주의집중성 및 정서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기질적 특성들은 자기조절능력의 개인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이 중 이러한 개인차를 가장 크게 하는 요인은 기질의 특성 중 주의집중성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는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가 자기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경님, 2001)와 초등학교 아동의 통제소재가 내재적일수록 자기통제가 높다는 연구(Ferner & Kantz, 1987)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일치는 내재적 통제소재가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자신의 행동이나 그 결과의 원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노력이나 의지, 동기 등으로 지각하는 내재적 통제소재의 아동은 미래의 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하여 자신의 사고, 정서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내재적 통제소재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부모요인은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재적 통제소재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지지와 적절한 감독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증가하게 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내재적 통제소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기조절능력에 도움이 되는 간접 효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경님, 2001)와 부모의 따뜻하고 민감한 반응이 유아들의 순응행동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Kochanska et al., 1995) 및 부모의 적절한 통제와 감독이 자녀가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바람직한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주장(Baumrind, 1983)에 의해 지지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지지와 감독의 부모요인이 내재적 통제소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영태·이경님, 2009)에 의하여 지지된다. 이는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함께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적절한 감독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재적 통제소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부모요인이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설명 할 수 있다. 부모의 충분한 정서적 지지는 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신뢰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므로(Shaffer, 1999)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에 중요하다. 또한 부모의 지지와 함께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동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은 아동이 스스로 자기규제와 자기통제를 습득해 나가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Shaffer, 1999). 그리고 부모지지와 부모감독이 내재적 통제소재를 높게 하여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은 부모지지와 부모감독이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에 부모지지와 부모감독의 부모요인은 중요한 환경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증진을 위하여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합리적인 감독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부모교육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종합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활동성, 주의집중성, 정서성의 기질과 부모지지와 부모감독의 부모요인 및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모든 기질적 특성은 부모요인과 내재적 통제소재를 매개로, 부모요인은 내재적 통제소재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주의집중성은 가장 큰 인과효과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개인차에 기질적 특성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중 활동성의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주의집중성과 정서성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주의집중성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개인차를 가장 크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부모지지와 부모감독의 부모요인과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는 긍정적인 직접적 효과가 있다 그리고 부모요인과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는 기질과 자기조절능력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요인은 기질과 내재적 통제소재 간에 매개적 역할도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아동의 기질과 내재적 통제소재의 개인적 요인과 부모지지와 부모감독의 부모요인만을 선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의 경우 또래와 학교환경 요인 등 다양한 변인들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고려한 좀 더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통하여 아동의 보고에 의존한 한계가 있다. 특히 부모요인은 부모측정도 필요하므로 부모보고를 비롯한 교사보고 및 또래보고의 다각적인 자료원을 병행하여 좀 더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김선희 · 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민하영(1998).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 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태 · 이경님(2009). 부모변인과 아동의 유능감 및 내재적 통제소재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교육학회*, **18(4)**, 5-19.
- 박호선(2002).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유아의 자기조절행동 발달간의 관계.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정애(2004). 유아의 충동성 기질 및 사회놀이 참여도와 자기규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41-58.
- 오현숙(2006). 유아의 기질 및 성격, 어머니의 만족도와 양육행동의 관계: 유아의 자율성과 연대감 발달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2)**, 211-226.
- 이경님(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아동의 사회성, 자아개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2)**, 97-110.
- 이경님(2008).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11-224.
- 이경님(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아동의 기질 및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6)**, 1209-1219.
- 이명숙(1994). 청소년의 자기능력 지각에 대한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2)**, 92-107.
-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양미(1994). 어머니 양육방식의 관련 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희수(1994).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숙 · 김미숙(2005).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42(9)**, 209-228.
- 최지현(200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 자기통제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정경(2003).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척도 개발과 관련 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숙영(2007). 부모 애착, 부모 감독, 또래관계가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onfred, J. (1976). Moral development from the standpoint of general psychological theory.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ornstein, M. C., Lamb, M. E.(2005). 광금주 · 김민화 · 신혜은 · 김연수 · 이새별 · 이승진 공 역(2009). 발달과학. 서울: 학지사.
- Baumrind, D.(1983). Rejoinder to Lewis's reinterpretation of parental firm control effects: Are authoritative families really harmonious? *Psychological Bulletin*, 94, 132-142.
- Berk, L. E.(2007). *Child Development(8th ed.)*.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Inc.
- Bodrova, E., & Leong, D. J.(1996). *Tools of mind: A vygotskian approach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Calkins, S. D.(2002). Does aversive behavior during toddlerhood matter? The effects of difficult temperament on maternal perceptions and behavior.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3, 381-402.
- Connell, J. P. (1985). A new multidimensional measure of children's perception of control. *Child Development*, 56, 1018-1041.
- Ferner, M., & Krantz, M.(1987). Self-control, locus of control and social status in children. *Psychology Reports*, vol. 60, 355-358.
- Goodman, S. M., Brogan, D., Lynch, M. E., & Fielding, B.(1993). Social and compet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Child Development*, 64, 516-523.
- Kail, R. V.(2007). *Children and their development(5th ed.)*, Pearson Education Inc. Prentice Hall.
- Kerr, M., & Stattin, H.(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66-380.
- Kliewer, W. (1991). Coping in middle childhood: Relations to competence. A type behavior, monitoring, blunting, and locus of 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 689-697.
- Kochanska, G., & Knaack, A. (2003). Effortful control as a personality characteristic of young children: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71, 1087-1112.
- Kochanska, G., Aksan, N., & Koenig, A. L.(1995).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oots of preschooler's conscience: Commuted compliance and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1752-1769.
- Kopp, C. B.(1982). The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47, 1020-1029.
- Leaner, R. M., & Kauffman, M. B.(1986). On the meta-theoretical relativism of analyses: A critique of Kender's comments. *Developmental Review*, 6, 96-106.
- Miller, D. C. (2000). *Adolescents decision making in academic and social contexts: A self-regulation perspective*.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Nowicki, S. & Strickland, B. R. (1973). Two pants to delinquency: The early and late starter models In K. B. Rubin & D. Pepler(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 Erlbaum.
- Plomin, R., Defries, J. C. Craig, I. W., & McGuffin, P. (Eds.) (2003). *Behavioral genetics in the postgenomic era*.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ose, A. (1991). The relationship of self-controlling skills to personal and socia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Doctorial dissertation, Biola University.
- Rothbart, M. K.(1989). Temperament in childhood : A framework.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E&S), *Temperament in childhood*. New York : Wiley.
- Rothbart, M. K.(2003). Temperament and the pursuit of an integrated developmental psychology. *Merrill-Palmer Quarterly*, 50, 492-505.
- Rothbart, M. K.(2004). Emotion-related regulation: Sharpening the definition. *Child Development*, 75, 334-339.
- Rothbart, M. K.,& Bates, J. E.(1998). Temperament. In N. Eisenberg(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pp.105-176). New York : Wiley.
- Shaffer, D.(1999). *Developmental psychology*(5th ed.) : *Childhood & adolescence*, Brooks/cole.
- Shiner, R., & Caspi, A. (2003). Personality differences in childhood and adolescent: Measurement, development, and consequenc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 2-32.
- Shoda, Y., Mischel, W., & Peak, P. K.(1990). Predicting adolescent cognitive and self-regulatory competencies from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Identifying diagnostic condi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78-986.
- Strickland, B. R.(1973). Delay of gratification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i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0, 338.
- Van den Boom, D. C., & Hoeksma, J. B.(1994). The effect of infant irritability on mother-infant interaction: A growth-curve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581-590.

- 접수일 : 2010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10년 10월 07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12월 16일